

# 그 해는 여성혐오가 시대정신이었던가?!

: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도서출판 여이연, 2016

심혜경\*

## 어쩌면/아마도 우리 모두의 페미니즘

작년과 오늘까지의 2016년의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페미니즘’, ‘여성혐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연일 이와 관련된 개념 또 현실의 사건들이 연일 미디어를 장식했다.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의 댓글, SNS 게시물과 댓글들은 차치한다 해도, 신문, 저널, 계간지는 이와 관련된 기획과 특집을 앞 다퉈 내놓았고, 내놓고 있다. IS에 합류한 김군의 트위터 멘션, ‘일베’의 혐오발화에 대응한 미러링(mirroring) 사이트 ‘메갈리아’와 ‘위마드’의 출현, 지난 5월의



강남역 살인 사건, 한 성우의 메갈리아 티셔츠 인종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몇 년간 출판시장의 기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여성주의와 관련된 도서의 출간과 판매량은 날마다 최고치를 갱신했다.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10권 중 7권이 페미니즘 도서일 정도이며, 특히 이 저작들의 소

---

\* 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램머

비자이자 일련의 이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20대 여성들은 자신을 지켜 내기 위한 칼과 방패로 페미니즘을 장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1)</sup>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페미니스트들 선후배들의 날선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여성주체들의 열정과 분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달은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남성들의 목소리들도 여러 갈래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성들이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성찰하는 ‘페밍아웃(feminist coming-out)’이 증가한 것이다. 그 중 한 문학평론가는 ‘여성 혐오’라는 말의 번역에 대한 칼럼에서, 많은 서구 남성작가들이 ‘여자를 현실에서 소외시킨 모든 태도와 방법과 의식을 함축하게 된’ 미소지니(misogyny)의 번역어가 이제는 ‘여자를 남성입문의 발판으로, 구원의 여인상으로, 다른 세계의 안내자로 특화하여 여자를 삶에서 배제시키려는 모든 환상과 편견을 더 많이 의미하게 된’ 오늘의 상황을 가슴 아프게 진단해, 젠더에 상관없이 공감을 얻었다.<sup>2)</sup> 반면 다음 날에는 ‘감정수업’을 맨스플레인(mansplain)하던 한 남성철학자가 ‘페미니즘은 수준이 떨어진 다’면서 동서양의 철학을 총망라한 자신의 새 책에서 단 한 명의 여성철학자만을 수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철학자 중에 여자가 없’으며, 페미니즘은 ‘파시즘적 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일갈해,<sup>3)</sup> 바로 전날의 논평이 무색하게도 남성 대 여성의 혐오 구도에 다시금 기름을 부었다. ‘페미니즘’과 ‘여성혐오’는 너나 할 것 없이, 지식인 남성들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그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표명하게 하는 개념어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2016년은 어쩌다가 ‘페미니즘 원년’이 되었다. 우리는

- 
- 1) 정원식, “응답하라 20대 여성들, 페미니즘 도서 열풍 이끈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9일(검색일 2016년 8월 9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92100015&code=9602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92100015&code=960205)
  - 2) 황현산, “[황현산 칼럼] ‘여성혐오’라는 말의 번역론, 한겨레, 2016년 9월 8일(검색일 2016년 9월 8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585.html>
  - 3) 인터파크 북DB, “시리즈 작가 인터뷰, 강신주 ‘날 비판하는 사람들? 50년 후엔 나만 남는다’”, 2016년 9월 9일, (검색일 2016년 9월 9일)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993971&memberNo=3482895&vType=VERTICAL>

감정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특히 ‘여성혐오’가 휩쓸고 있는 이 시공간을 다시금 ‘페미니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있는 임옥희의 신간 『젠더 감정 정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안타깝지만 또는 반동적인 의미에서 그녀가 서문의 첫 문장으로 시작한 것처럼 ‘그 해는 여성혐오가 시대정신이었다’<sup>4)</sup>로, 우리 모두는 2016년의 뜨거운 여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여성혐오를 비롯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진중한 진단을 내놓는 동시에 그 감정(종종 시대정신 혹은 그 정동의 이름으로)의 전환을 페미니스트적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에 접속되는 감정의 정치에서 새로운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상상력을 회복하고자 시도한다. 그럼 ‘아직 도래한 적 없는 미래의 약속으로서 페미니즘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감정의 젠더 정치를 분석’(19쪽)을 꾀한다.

혹자는 이 책의 제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개념어보다는 최근 진보적 지식 담론에서 출몰하고 있는 ‘정동(affect, affection)’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임옥희는 정동과 ‘감정(emotion)’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책의 제목에 ‘감정’을 배치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정동은 주로 스피노자와 들뢰즈의 맥락에서 철학으로 논의되어 왔다. 브라이언 마수미는 정동을 재현될 수 없는 사유양식이며, 일종의 내적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이함으로써만 포착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동은 의식적 지각이나 언어, 감정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 자율적 반응은 예측과 통제를 넘어선 것으로, 내장적 감각(visceral sensibility)으로 표현했다. 멜리사 그레그의 정동은 ‘주관적 감정, 인지적 경험, 생리적 요소, 무의식적 환상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심리생리학적 상태를 아우르는 감정의 흐름이자 움직임’으로 정의한다. 또 이토 마모루는 감정은 표현할 수 있는 의식화된 마음의 상태로, 정동은 의식을 매개할 시간 없이 바깥의 자극이나 정보가 바로 신체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구분한다.<sup>5)</sup> 정동과 감정은 포함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4)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도서출판 여이연, 2016, 7쪽. 앞으로 본문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에는 괄호 안에 쪽수만 언급하겠다.

대비되어 정의되기도 한다. 다소 거칠게 추론하면, 임옥희는 ‘잠재적인 것’의 의미와 ‘타인에게 관찰되는 것’으로서, 총체적인 어떤 흐름이자 운동으로서의 정동보다 보다 현재의 분석을 위해 보다 명백해 보이는 ‘감정’의 국면을 선호하는 듯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감정이 주관적이라고 여겨지는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다양한 얼굴로 표현되고 재현되어 (present/represent) 귀환해 오는 광대한 사회적 영토를 탐구하기 위해서이며, 젠더(혹은 젠더 무의식)적으로 재/배치되는 감정의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해석하기 위한 페미니즘의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을 위해서일 터다.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방법론이 회의(懷疑)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정의 개념 역시 가치중립적인 것일 리가 없지 않은가. 감정은 생물학적, 화학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문화와 담론에 의한 것인가? 물론 감정 구성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류학과 심리학 분과에서 진행되어 온 감정 연구는 이제 감정에 담겨 온 역사성과 정치성을 논하고 있다.<sup>6)</sup> 감정은 지정학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슬람은 굴욕을, 서구는 공포를, 아시아는 희망의 감정을 담보한다. 이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 물결 속에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아시아의 고속 경제 성장이라는 현실을 인식한 서구인들의 혼란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미디어의 세계화는 실시간으로 정체성과 감정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sup>7)</sup> 또 정치는 합리성의 영역이 아닌 감정의 영역으로 분석되고 있다.<sup>8)</sup> 기하

5)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가상계』, 갈무리, 2011;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위스, 최성희 외 역, 『정동 이론 :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2)』, 갈무리, 2016; 이토 마모루, 김미정 역, 『정동의 힘』, 갈무리, 2016; 문화과학사 편집부, 『문화과학 86: 정동과 이데올로기』, 문화과학사, 2016 여름.

6) 윌리엄 M. 레디, 김학이 역, 『감정의 향해: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문학과지성사, 2016.

7) 도미니크 모이시, 유경희 역, 『감정의 지정학: 공포의 서양, 굴욕의 이슬람, 희망의 아시아』, 랜덤하우스, 2010.

8) 요시다 도모루, 김상운 역,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이성의 정치를 뒤집는 감정의 정치학』, 바다출판사, 2015.

감정의 정치학을 논할 때이다. 여기에 임옥희는 2016년 감정의 정치학을 논하는 파라미터로 ‘젠더’를 기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문학 작품, 회화, 사회현상, 영화, 여성이론가들의 저작들을 젠더적으로 검토하면서 ‘강렬한 만남이자 힘들의 흐름인 감정’을 재해석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책을 경유해 강력한 감정의 복잡다단한 흐름을 어떻게 교차시킬 것인가, 마녀의 신비로운 몰약처럼 어떻게 내 안의 곰솔에서 끓여낼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이 감정의 힘들을 실천하는 정치로 내 삶에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 여성혐오, 억압된 젠더 무의식의 귀환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가 본능적인 감정으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혐오감은 배설물, 혈액, 정액, 소변, 코의 분비물, 생리혈, 시체, 부패한 고기, 진액이 흘러나오거나 끈적거리거나 냄새가 나는 곤충 등 ‘원초적 대상’을 향한다. 이어, 이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이후 이성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투사적 혐오는 역겨운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전가되는데, 이들을 어떻게든 혐오의 원초적 대상과 연관시킨다. 그렇게 사회는 여성을 비롯해 신분이나 계급이 낮은 이들, 외국인들, 장애인이나 기형적 신체를 가진 사람들, 유대인, 인종 간 결혼을 한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극히 혐오해 왔다.<sup>9)</sup> 임옥희는 이러한 혐오의 메커니즘과 역사에 덧붙여, 오늘날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보이는 여성혐오 행위의 기저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젠더를 묻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여성혐오는, 가부장제의 공적 공간으로서 남성동성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젠더정치적 감정이 여전한 데에다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지구에는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초래한 경제적 공포, 다

9) 마사 C. 누스바움, 강동혁 역,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뿌리와 이파리』, 2016, 54~55쪽.

문화사회에 대한 문화적 불안, 계층상승의 좌절로 인한 정치적 혐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7쪽). 그래서 시대의 감정은 이 혐오를 비롯해, 너나 할 것 없이 초탈, 체념, 우울의 얼굴로 온라인을 또 오프라인을 배회하게 한다(9쪽).

임옥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감정마저 매판의 회로 속에 포획되어 있다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경제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다. 이들은 번덕스럽고 우연적이고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하고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원하는 고착화 즉, 지수화, 기계화가 어렵게 때문에 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잉여 쾌락이 되는 것이다(13쪽). 특히 저자는 감정의 젠더정치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폭력성, 수치심, 애도, 마조히즘)을 구원한다. 이들 감정 자체를 본디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낙인찍기보다, 저자는 이들 감정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데, 재/배치 따라 이들 감정이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4쪽). 실례로 분노는 부정의 감정, 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애인들에게, 여성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유색인종에게, 이주민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차별받는 모든 이들에게 분노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윤리적 힘이자 도구가 된다. 반면 공감과 사랑 같은 누구든 인정하는 긍정의 감정이 여성적인 것으로만 가치평가 되어 할당 배치되면, 이는 “남성권력의 원천이며, 남성지배라는 건축물을 유지하는 시멘트”(260쪽)가 된다. 저자는 “혐오가 친화로, 증오가 사랑으로 가역적으로 변형되는 정동의 사회심리학적 공간에 주목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감정정치”(14쪽)라고 선언한다. 감정의 젠더정치는 이러한 “감정의 가장무도회에 집중해 젠더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고 재/배치하려는 노력”인 것이다(14쪽).

그런 의미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는 개념은 임옥희가 새롭게 명명하고 있는 젠더 무의식(gender unconsciousness)이다. 1장에서 서술하는 젠더 무의식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감정들을 재/배치되고 있는 시각경제를 분석하는 때 장을 감싸고 있는 성운이기도 한데, 그 개념

정의와 함께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혹은 세계에서 이 젠더 무의식이 어떻게 회귀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한다. 그녀에게 있어 젠더 무의식이란 ‘타자의 억압의 흔적’으로, “다형도착적인 유아가 남자 혹은 유아로 강제적으로 분화되어야 하는 젠더 사회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억압”(15쪽)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캉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성별이 분화되는 상징계로 진입해야하는 인간 주체는 특정한 욕망을 억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식으로 부상하지 못한 것들은 부착될 곳을 향해 떠돌기 마련인데, 그런 현상이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젠더 억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억압되어 의식으로 부상하지 못한 잉여가 바로 젠더 무의식이다. 그리고 억압된 젠더 무의식으로 인해 출현하는 다양한 감정들인 쾌락, 혐오, 공포, 사랑, 불안, 애도 등은 상형문자와도 같은 수수께끼, 신여성, 페미니스트, 팜프 파탈, 레즈비언 뱀파이어, 기계여성, 사이보그, 귀요미, 된장녀 등의 모습으로 시대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귀환하여 재현되거나 가시화된다는 것이다(1장). 그렇게 젠더 무의식의 귀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다종다양한 가장무도회의 코스튬들은 상징질서의 역할을 유희하는 동시에 희화화한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존재인 동시에 저항적인 주체이며, 언제든지 발톱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귀염 떠는 고양이기도 하다. 수많은 변검(變臉)으로 유희하는 여성은 위장과 선택적 드러내기/숨기기를 시시때때로 수행하기 때문에 남성의 시각경제로는 포착하기 힘든 기괴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표면으로 드러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이들의 여러 가지 모순적이고 중의적인 얼굴은 상징 질서를 교란하는 눈부신 플레이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시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언급되고, 젠더적인 관점으로 미래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형상들을 상상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뒤이은 2장은 폭력의 젠더 정치의 배치를 살피고 그것에 젠더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를 조명한다. 3장은 비체와 호러와의 관계성을 조명하면서 메두사로 재현되는, 목을 치고 거세하는 여자들의 치명적 매력에 매혹되는 남성의 젠더 무의식을 점검한다. 4장에서는 여성적

주이상스에서 마조히즘의 젠더정치성을, 5장에서는 수치의 양가적인 얼굴에 대해 말한다. 동일한 사건이 명예/치욕, 용기/비굴의 감정으로 배치되는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수치가 아닌 자부심으로 재배치해낸 안젤라 카터와 엘프리데 엘리네크의 씩씩하고도 용감한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6장에서는 존 쿿시의 소설 『추락』을 통해 등장인물인 아버지와 딸 각각의 추락의 재/의미화와 젠더의 관계를 분석한다. 7장은 애도의 감정에 대한 정치적 급진성을 논한다. 타자와의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감정의 젠더정치 장치로 애도에 주목한다. 8장은 가부장제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도구화한다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물질 토대와 젠더 무의식적 욕망을 재해석하는 에바 일루즈의 사랑의 용도에 주목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자유주의 휴머니즘을 다시금 활용해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으로 선언하고,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교육을 통한 혐오와 수치를 넘어서는 방안으로 공감을 피하는 서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마사 누스바움에 주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젠더 무의식 개념을 명명한 1장을 포함해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젠더 무의식이라는 조개가 품어 내놓은 다종다양한 진주 같고, 책 전체는 다시 그 젠더 무의식의 또 다른 모습의 명주실로 엮은 2016년 한국판 진주목걸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파편화된 총체이자 따로따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퍼즐 같디는 느낌을 준다. 분석 텍스트 시공간의 전방위적인 방대함, 거의 모든 감정들이 젠더 무의식적 귀환을 통해 출몰한 다종다양의 재현체들, 이들에 관해 철학과 문학의 이론들이 총출동하여 젠더의 프리즘을 통과시킨 9장의 분석들을 요연하게 드러내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평의 짐을 진 이에게는 매 쪽 어느 구석하나 만만치 않은 저작이다. 서평가의 곤혹스러움과 저작의 폭넓음 사이에서 유랑하고 쉬고 가파르게 따라가다가, 결국 새로운 독자를 향해 무책임하게도 권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저, “읽어 보라.”



## 새로운 감정의 젠더정치를 위하여

저자의 말처럼 젠더퀴어(genderqueer)를 언급하는 시대에 다시 젠더를 들고 나와 젠더와 페미니즘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또 널을 뛰는 이론의 점프-컷(jump-cut)과 지적인 사고의 자유로움의 과정을 담은 글쓰기가 따라가기 버겁고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정작 전략과 전술은 헤르미온느의 두뇌에서 그리고 그녀의 만능가방에서 지금 필요한 물건을 꺼내어 사태를 해결해 내듯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건과 현상을 접하더라도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 전략을 다시 꺼내오면서 오늘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라는 다락방의 마녀 임옥희가 혹자는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텍스트의 정치학과 분석의 이론화를 놓지 않고 있는 이론가의 냉철함과 분석가의 실천력을 끈질기게 잡고 있는, 게으른 능동성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페미니스트 선배이자 동료이다.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개념어, 페미니즘이 삶의 철학이 되었으며 문학과 대중문화 텍스트에 익숙한 이들에게 임옥희의 이 저작은 어쩌면 술술 잘 읽혀지는 히는 페미니스트 문화비평서일 것이다. 반면 임옥희를 새롭게 만나는 다음 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 이 책은 페미니즘 입문서이자 페미니즘 포탈이 될 수도 있겠다. 입에 붙지 않은 개념어를 원전으로 이끄는 매혹,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 대한 호기심, 젠더의 시계(視界)로 포착되는 문학과 대중문화 텍스트의 쾌락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클릭에 클릭을 거쳐 페미니즘의 다르고 또 놀라운 이론과 실천의 창을 열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첨예하게 인식되는 것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퇴행하는 보수화되는 주체들에 대한 우려였다. ‘떡고사니즘’이라는 말이 탄생하고 이를 신봉하는 이 시대의 주체와 타자들이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윤리적 존재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존이 위협받고 지

친 삶의 조건들이 연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위기 이래,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이 개인 주체의 심리적 공황으로 드러난 혐오의 감정으로 표현되고, 글로벌 양극화가 초래한 경제적 공포와 불안, 계층상승의 좌절로 인한 분노와 공격성이 자기 파괴로 치닫지 않도록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사건들에 대한 우려 역시 당분간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한 이 책에서, 부제는 2016년을 페미니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 페미니스트 동료와 선배들에게 올해는 물론 페미니즘의 원년이 아니다. 게다가 지구적 시공간에 따라, 또 여성 개개인의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의 상황에 따라 자기만의 페미니즘의 원년, 페미니즘의 역사적 기점 역시 다를 것이다. 사실 페미니즘의 기원을 설정할 수 없는 여성주의적 역사적 순간과 서술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배 페미니스트들의 투쟁과 구호, 지적이고 숭고한 업적과 희생적 삶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 같은 실질적인 수혜를, 그녀들이 모든 것을 걸고 받고자 했던 그녀들은 누리지 못했던 권리들을 고스란히 받았다. 그 속에서 매 순간, 누구에게든 그 페미니즘적 자각의 순간은 나만의 혹은 우리들의 페미니즘 원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6년의 한국, 많은 여성들이 올해를 페미니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전히 달성되지 못한, 여전히 우리가 투쟁해야만 하는 체제의 불합리함과 차별 받는 현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우리들이 새롭게 배치해야할 혐오와 수치, 추락과 애도, 분노와 우울, 사랑과 관용, 쾌락과 에로티시즘, 웃음과 눈물 같은, 감정들의 젠더 정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젠더정치의 텍스트 진단을 넘어 정동의 전환을 꾀해야 할지 모른다. 2016년을 여성혐오로 인한 페미니즘 원년으로 접어두고 새로운 페미니즘의 세기를 열기 위한 정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포 속에서 힘겹게 외치는 혐오와 분노의 구호는 떠들썩한 웃

음의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운 수다 그리고 다음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때창으로 바뀔 것이다. 새로운 감정의 젠더정치를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정동의 흐름 또는 운동에서도 주목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 미디어에, 광대한 네트워크 공간 속에 접속하는 젠더 주체 속에 있다. 문학과 영화, SNS의 같은 미디어 네트워크 속에서 여성혐오의 감정이 고정된 좌표를 가지지 않고 바이러스처럼 증식한 것처럼, 혐오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미러링과 젠더-벤딩(gender-bending)의 패러디 전략은 안티-바이러스로서 감정의 젠더정치를 수행하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한 페미니스트의 몸들 사이를 흘러 다니면서 강력한 만남을 만들어내고, 강렬한 힘의 흐름을 창조해냈기 때문이다.

이에 만국의 페미니스트여, 단결하라.

오늘 여기, 이론의 이해와 실천의 결단은 너와 나의, 우리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얼굴을 한 페미니즘은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고, 탈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랑하는 동물이다. 섬처럼 고독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세계와 조우하고, 세계를 발명하고, 세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들과 함께 산출한 세계만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이며, 따라서 이 세계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책임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인간 혹은 여성이 짊어져야한다. 그녀의 입장은 한 번도 성취된 것이 없었던 근대성의 약속과 다르지 않다. 그런 약속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는 결국 도래할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304쪽).